독자 개발 · 매체 변화… 불교 출판 과제 '산적'

월간 〈불광〉 500호 기념세미나서 논의

불교계 잡지 · 출판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가량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법륜 · 혜민 스님 등을 의존하는 저자 쏠림 현상도 심각했다. 또한 계절 · 연령을 고려한 마케팅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수 순천향대 미디어콘텐츠학과 초빙교수는 4월 27일 열린 월간〈불광〉 500호 기념 세미나서 주요 서점에서 나타난 통계들을 통해 불교출판의 현황과 과제를 짚었다.

장 교수에 따르면 불교 출판의 종교분야 점유율은 2009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타다가 2013년 정점을 찍은 후, 2015년에는 5.8%나 줄었다.

성장률을 봐도 하락세는 두드러진다. 2012년과 2013년 20%대 성장률을 보였지만, 2014, 2015년에는 21.1%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타났다.

이런 고저가 뚜렷한 점유율과 성장세에 대해 장 교수는 불교 출판의 부족한 기초체력서 원인을 찾았다. 성장률이 높은 해에는 어김없이 법륜 스님 및 혜민 스님과 같은 스타 필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실제, 종교분야 베스트셀러 10위권 내 도서 중 불교 서적 비율은 2010년 이래 4~50%를 유지하지만, 대부분이 법륜 스님의 저서이다.

장 교수는 "종교 출판 영역을 넘어 일반 독자들도 함께 읽을 만한 에세이형 불교 서적과 같은 베스트셀러가 없는 해에는 금세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것은 교육 분야 등 스테디셀러의 축적이 부족하거나 급속한 시장변화에 불교 서적이 빠른 속도로 퇴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자 니즈를 만족하는 다종(多種) · 다양한 책들을 적시에 개발하는 능력이 오늘날 한국불교 출판에 가장 요구되는 점"이라며 "같은 종교 출판 분야에 속하는 기독교 출판이 온갖 층위를 가진 책들을 통해 종교 서적 내에서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독서 소비층인 20~30대가 부재한 것도 불교 출판의 위기 요인으로 꼽혔다. 교보문고에서 10대를 위한 선행과제로 △'붓다 북클럽 · 서점'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 △불교 서적의 발견성을 높일 것 △디지털 등 적극적 매체 전환 등을 제언했다.

장 교수는 "독자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계층에게 적절한 도서를 선별 · 소개하는 불교 서적 전문 마이크로 사이트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웹진, 팟캐스트 등을 통해 불교 서적을 큐레이션해 소개한다면 책의 발견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읽는 콘텐츠'를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여전히 출판인의 몫"이라면서 "종이책 시장의 위축에 움츠러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출판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종이 콘텐츠에만 매몰되지 말고 열린 자세로 미래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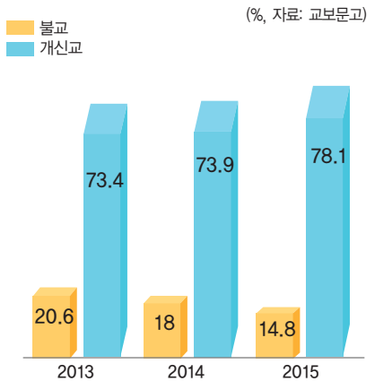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경달 네오터치 포인트 대표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콘텐츠 소비 성향'을, 이중호 한국출판콘텐츠 대표가 '디지털 시대 출판 잡지 최근 동향과 모색' 등을 각각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서재영 불광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가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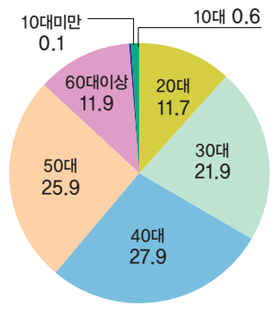
종교 분야 내 불교·개신교 서적 점유율

(%, 자료: 교보문고)



2015년 불교서적 연령별 점유율

(%, 자료: 교보문고)



불교출판 2년간 20% 하락세
혜민 등 저자 쏠림 현상 심각
독자 확보 등 마케팅도 전무

책 · 사람 연결하는 新 모델 필요
독서모임 활성화 충성독자 확보
디지털로 매체 변화, 시작해야

진각종 종의회 의장에 덕일 정사 재선출

부의장 무외 · 원명 정사

진각종 제14대 종의회 하반기 의장에 덕일 정사〈사진〉가 재선출됐다.

진각종 종의회는 4월 20일 진각문화전승원 종의회 회의실서 제398회 정기 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선거를 통해 보원심인당 주교 덕일 정사를 임기 2년의 제 14대 종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재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무외 정사(불정심인당 주교)와 원명 정사(대명심인당 주교)가 각각 뽑혔다.

이번에 종의회 의장에 선출된 덕일 정사는 "2년전 밝혔던 명품 종의회를 통해 명품 종단을 만들자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며 "이런 각오로 하반기 종의회도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덕일 정사는 1986년 최정심인당 교화를 시작해 대원심인당 주교, 밀교신문사 논설위원, 진선여자중학교 교장, 제9 · 13대 종의회 의원, 14대 전반기 종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보원심인당 주교와 유지재단 이사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김주일 기자**

"국가와 사회 위해 지혜 등불 밝히자" 국회 정각회(회장 강창일)는 4월 25일 국회의사당 중앙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국회의사당 봉축탑은 현재 시민사회와 국회에서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이천 오층석탑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천 오층석탑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다. **노덕현 기자**

잊혀진 역사 현장, 옛 절터 기록하다

불교문화재硏 · 문화재청 〈한국의 사지〉보고서 발간
대구 · 경북 231개소 조사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이 함께 조사 · 발간한 〈한국의 사지–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대구 · 경북 지역 폐사지를 총망라한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일감)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2015년도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의 성과를 담은 〈한국의 사지-대구광역시 · 경상북도〉를 발간했다"고 4월 28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지역은 2012년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사지를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진행됐으며, 2015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나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된 경주 황룡사지 · 감은사지 · 사천왕사지, 군위 인각사지, 포항 법광사지 등 사지 14개소와 석탑, 불상 등 지정문화재가 있는 사지 180개소 등 총 231개소를 추가 조사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한국의 사지-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는 폐사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역(寺域), 식생(植生)과 유구 · 유물 현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좌표 등 다양한 정보를 정리하여 수록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원래 절터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된 문화재를 조사한 내용도 포함되어 사지의 역사적 · 학술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2012년부터 제작한 '사지 분포현황지도'를 지난해에 이어 별책으로 수록해 사지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물관 등에 소장된 사지 출토 문화재의 사진과 일제강점기 사진을 첨부해 시각적 효과를 살린 것도 강점이다.

〈한국의 사지-대구광역시 · 경상북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대학도서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며, 국민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폐사지 기초조사사업은 2010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폐사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앞으로 사지와 소재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 관리 ·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올해는 강원도, 전라북도 지역 중 기존에 미조사된 207개소의 사지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노동자 희생강요 구조조정 멈춰라"

조계종 사노위, 노동자의 날 성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4월 28일 126주년 노동자의 날 기념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들이 기업별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대규모 실직이 우려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사회노동위는 "IMF 당시 대량해고와 이로 인한 가정파탄,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자살을 지켜본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 곧 '생계의 공포'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자 대량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 아닌, 기업의 책임감에 따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의 구조조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노동위는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만, 구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은 아예 없다"며 "그러는 와중 조선 협력업체는 무너져 가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은 끊기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박아름 기자

템플스테이 보조금 집행 교육 사업단, 제도 강화 내용 설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4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각 사찰 템플스테이 실무자와 총무 · 재무 스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2016년도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사업 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강화된 제도는 △공사업체 선정 전 자부담 및 관련 증빙자료 확인 △설계 · 감리 · 공사업체 분리 △지정 감리제도 운영 등이다.

교육에 앞서 단장 성효 스님은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 투명성은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사사로움이 반드시 빠져야 한다"며 "번거롭더라도 염두에 뒀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포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추서
1990년 10월 9일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추서

불기2560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이 사 불심 도문
이 사 봉안 효경
이 사 서해 흥교
이 사 선효 성학
이 사 장산 도업
이 사 서주 태원
이 사 금아 혜국
이 사 장산 성춘
이 사 무심 보광
이 사 벽암 지홍
이 사 월천 혜총
감 사 여천 무비
감 사 월암 덕상
용성문도회 회장 경 선
대각회분원 회장 지 암
사무국장 보관 김형문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목동 법안정사 · 횡성 대각정사 주지 월천 혜총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Tel. (02) 765-2701, Fax. (02) 741-1385